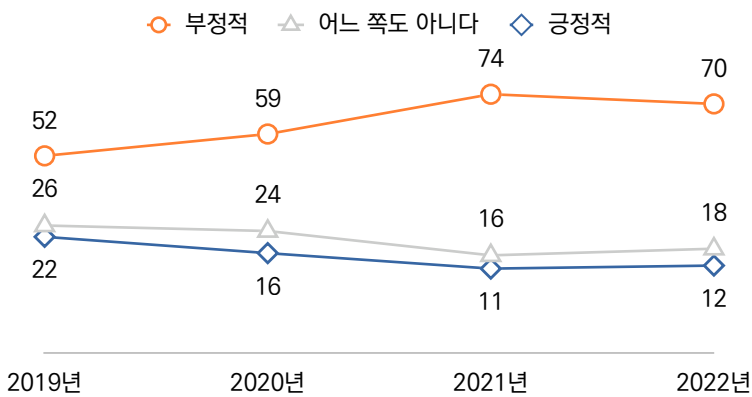




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상은? 10명 중 7명(70%)은 '부정적'!

- ▶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(EAI)이 공동 기획하여 최근 발표한 '대중(對中)인식 조사'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(70%)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12%에 불과했다.
- ▶ 3년 전인 2019년(52%) 대비 중국에 대한 '부정적 인식'은 18%p나 증가했고, '긍정적 인식'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점이 주목된다.

[그림]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긍·부정 인식 추이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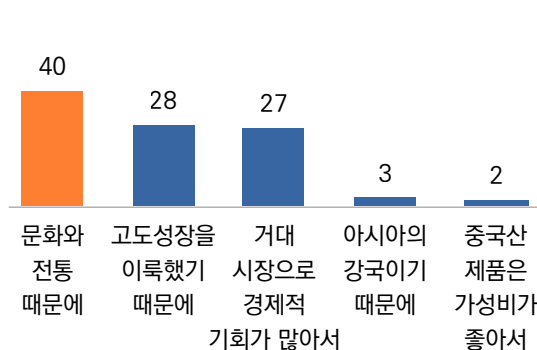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: 중앙일보, '국민 70% "中 인식 부정적"..."샤드는 정상화, 추가엔 반대" 58%' 기사 참조, 2022.08.21(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95853>)
(중앙일보·동아시아연구원, '국민 대중(對中)인식 조사',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,028명, 심층 대면 면접조사, 2022.07.21.~08.0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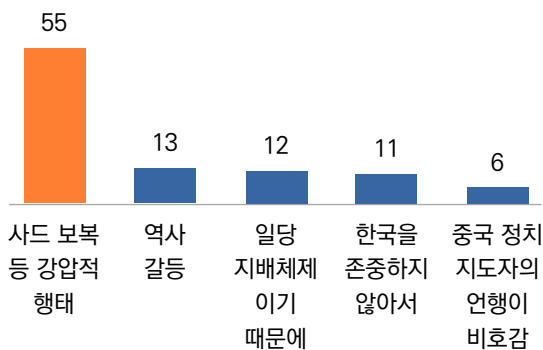
◎ 중국, 긍정 인식 이유 '문화와 경제 때문' vs 부정 인식 이유 '강압적 행태와 역사 갈등 때문'!

- ▶ 중국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한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았다. 긍정 평가 이유로는 '문화·전통 때문에'가 40%로 가장 많았다. 다음으로 '고도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' 28%, '거대 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많아져서' 27% 등 경제적 요인이 높았다.
- ▶ 한편 부정 평가 이유로 '샤드 보복 등 강압적 행태'를 꼽은 비율이 절반 이상(55%)이었고, 이 외에 '역사 갈등' 13%, '(공산당) 일당 지배체제이기 때문에' 12% 순으로 조사됐다.

[그림] 중국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(상위 5위, %)



[그림] 중국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(상위 5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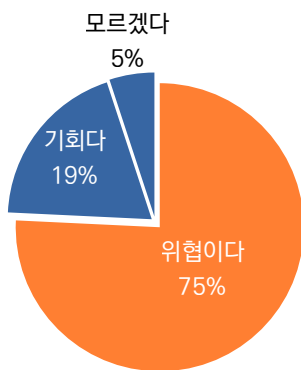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: 중앙일보, '국민 70% "中 인식 부정적"..."샤드는 정상화, 추가엔 반대" 58%' 기사 참조, 2022.08.21(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95853>)
(중앙일보·동아시아연구원, '국민 대중(對中)인식 조사',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,028명, 심층 대면 면접조사, 2022.07.21.~08.0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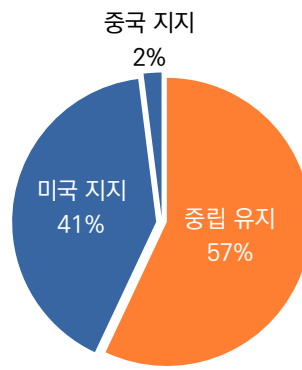
◎ ‘중국 부상’이 한국 경제·안보에 ‘위협이다’ 75%, 미·중간 심각한 갈등 시, ‘중립 유지’(57%) 입장이 가장 높아

- ▶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중국은 경제 및 정치·외교 영역에서 패권 경쟁 양상(eg.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, 사드 문제로 인한 경제 보복)을 띄고 있다.
- ▶ ‘중국의 부상’이 한국의 경제·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질문하였다. 그 결과 ‘기회’라고 답한 비율은 19%였고, 4배 가까이 많은 75%가 ‘위협’이라고 응답해 ‘중국의 부상’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았다.
- ▶ 그러나 ‘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지’에 대해서는 ‘중립 유지’ 의견이 57%로 가장 많은 가운데, 중국(2%)보다는 미국(41%)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.

[그림] 중국 부상이 한국 경제·안보에 미치는 영향



[그림] 미·중 경쟁 속 한국의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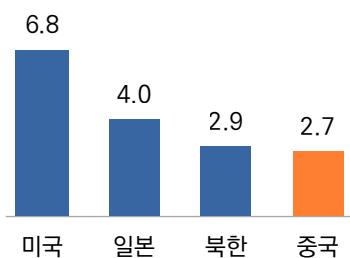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: 중앙일보, ‘심각한 미·중 갈등엔...’ “중지지할 것” 2% “美지지할 것” 41% [한·중 수교 30년] 기사 참조, 2022.08.21.
(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95846#home>) (중앙일보·동아시아연구원, ‘국민 대중(對中)인식 조사’,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,028명, 심층 대면 면접조사, 2022.07.21.~08.0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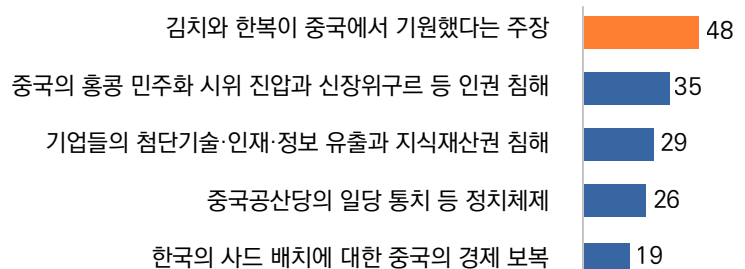
◎ 한국 MZ세대, ‘중국 호감도’ 10점 만점에 2.7점... 일본, 북한보다 호감도 낮아

- ▶ 한국의 청년 세대(2030세대)는 중국에 대해 어느정도 호감을 갖고 있을까? 호감도를 ‘매우 비호감(0점)’부터 ‘매우 호감(10점)’까지 11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중국 호감도가 평균 2.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.
- ▶ 미국, 일본, 북한, 중국의 4개국 평균 호감도(2030세대 대상)를 보면 미국이 6.8점으로 가장 높았다. 다음으로 일본 4.0점, 북한 2.9점이었고, 마지막으로 중국(2.7점)으로 조사됐다.
- ▶ 한편 ‘MZ세대가 중국에 비호감을 느끼는 이유’로는 앞선 일반 국민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인(1위, 사드 보복 등 강압적 행태 55%)과는 달리 ‘김치와 한복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48%’을 꼽아 ‘문화적 요인’이 더 크게 작용함을 보여주었다.

[그림] 한국 MZ(2030)세대의 주변국 호감도
(11점 척도, 평균, 점)**



[그림] 중국에 대한 비호감 이유 (0~4점 응답자, 복수응답, 상위 5위, %)



*자료 출처: 동아일보, ‘MZ세대 79% “中 싫다”... 北-日보다 호감도 낮아 41%’, 2022.08.22. (<https://www.donga.com/news/Inter/article/all/20220822/115076899/1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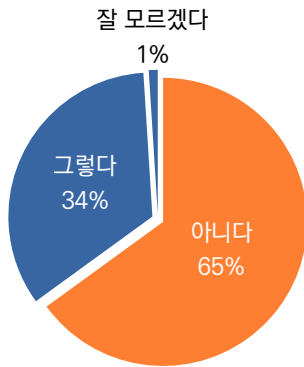
(동아일보·한국국제교류재단·성균국대연구소, ‘한·중 수교 30년 대중 인식 조사’, 전국 만 20~39세 성인 남녀 420명, 전화면접, 2022.08.11.~14)

**11점 척도로 0점 매우 비호감~10점 매우 호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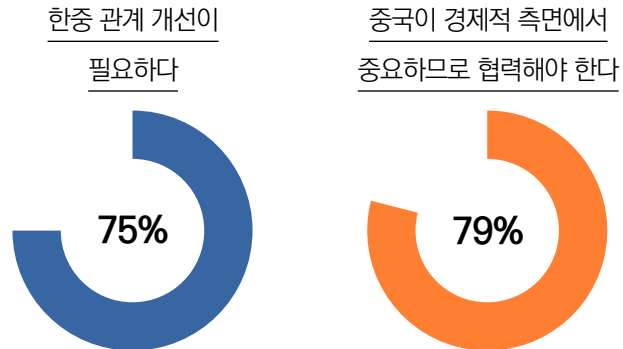
◎ 2030세대, ‘기회 되어도 중국 방문할 생각 없어’ 65%!

- ▶ MZ세대들은 중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? MZ세대에게 ‘기회가 되면 중국을 방문하고 싶은지’ 묻은 결과, 3명 중 2명 정도(65%)가 중국 방문 생각이 ‘없다’고 응답했다.
- ▶ 그러나 ‘한중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’에는 MZ세대의 75%, ‘중국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’는 의견에는 79%가 동의했다.
- ▶ 한국의 MZ세대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, 중국 시장은 ‘경제적 측면’에서 중요하므로 ‘관계 개선’과 ‘경제협력은 필요하다’는 실리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.

[그림] 중국 방문 의향



[그림] 한국의 MZ세대의 중국에 대한 인식 (동의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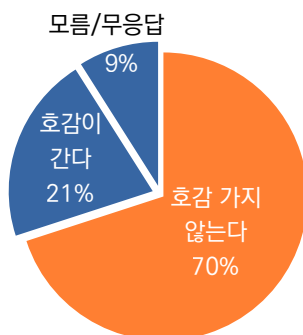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: 동아일보, 'MZ세대 79% "중 싫다"... 北-日보다 호감도 낮아 41%', 2022.08.22. (<https://www.donga.com/news/Inter/article/all/20220822/115076899/1>)

(동아일보·한국국제교류재단·성균중국어연구소, '한-중 수교 30년 대중 인식 조사', 전국 만 20~39세 성인 남녀 420명, 전화면접, 2022.08.11.~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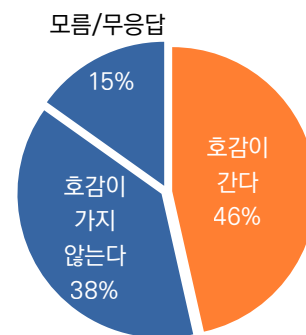
◎ 한국인의 ‘일본’ 호감도 21%, 한국인의 ‘일본인’ 호감도 46%!

- ▶ 이번에는 가깝지만 먼 나라 ‘일본’에 대해 우리나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. 한국갤럽의 최근 ‘일본 관련 인식’ 조사 결과를 보면 ‘일본’에 대한 호감도는 ‘호감 가지 않는다(70%)’가 ‘호감이 간다(21%)’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.
- ▶ 재미있는 점은 ‘일본 사람’에 대한 호감도는 다르다는 것이다. ‘일본 국가’에 대한 호감도와는 달리 ‘일본인’ 호감도는 46%로 국가 호감도보다 2배 이상 높았다.

[그림]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



[그림] 한국인의 일본인 호감도



*자료 출처: 한국갤럽, 데일리 오피니언 제507호(주변국 관계, 일본 관련 인식), 2022.08.12. (전국 만 18세 이상 1,000명, 전화조사, 2022.08.09.~11)

**2점 척도 질문임